

# 2023년 1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분기 보고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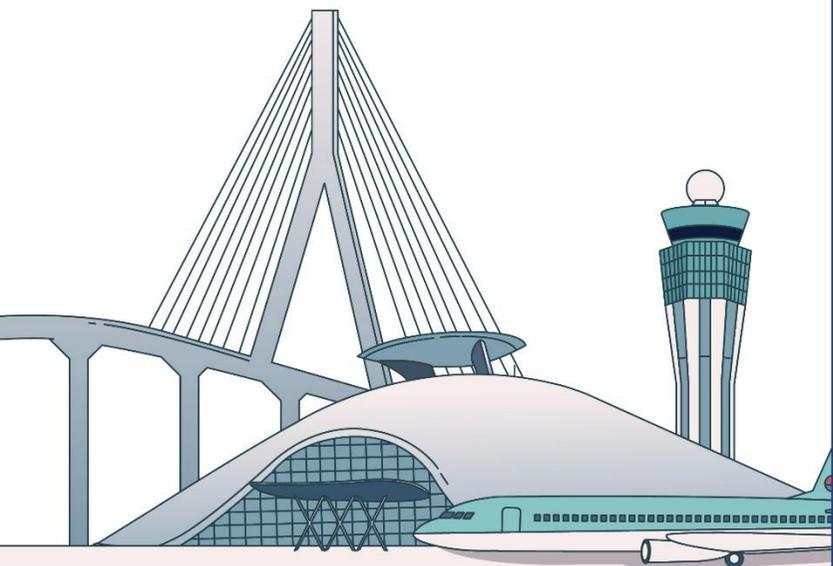
국토교통부



한국교통연구원  
THE KOREA TRANSPORT INSTITUTE



# 항공교통 소식



## 01 지연율 기준 변화

◆ 국제적으로 미국, 유럽,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 등 주요 국가 및 기관에서는 **주기장(탑승게이트)** 출·도착 예정시간 대비 **15분을 초과한 경우 지연운항으로 보고 있으며, 2023년부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적용**

### 기존(~2022)

활주로 출도착 기준 **국내선 30분, 국제선 60분** 초과 지연된 운항

### 현재(2023~)

게이트 출도착 기준  
국내/국제 15분 초과 지연된 운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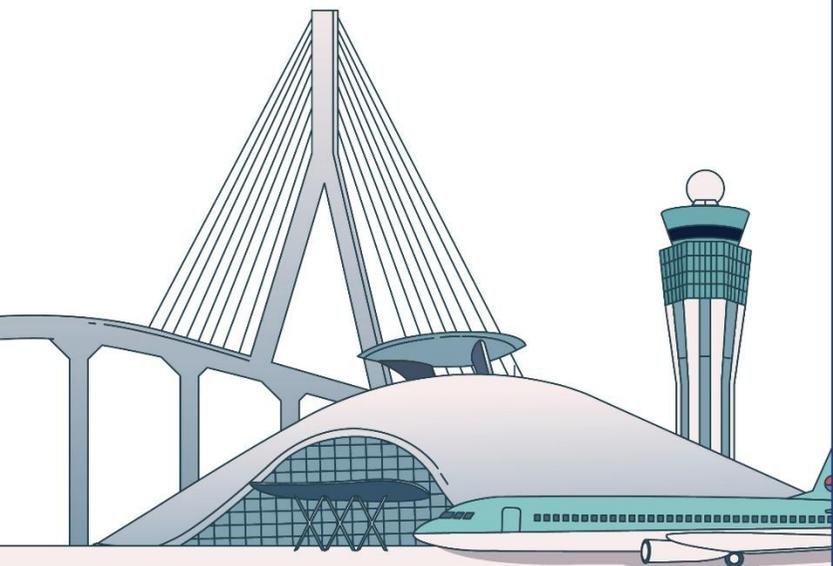
◆ 2023년 1분기 시간준수율 국내선 **79.6%** (기존 기준 적용시: 87%) | 국제선 **78.6%** (기존 기준 적용: 95.3%)

- Cirium On-Time Performance Report, OAG Punctuality League 등 글로벌 항공 데이터 분석 기관의 시간준수율 통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연기준으로 분석·공표, 2023년 3월 시간준수율 **지역별 상위 10개** 항공사의 평균은 **아시아 지역 82.5%**,
- **북미 지역 71.4%, 유럽 지역 82.1%** 수준이며, 이는 상위 10개 항공사 평균으로 전체 항공사 평균 시간준수율은 더 낮음

(출처: Cirium OTP Monthly Report - March 2023 Airlines)



# 항공교통 소식



## 0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저가 항공권 예약 시 소비자 피해 주의

◆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**여행사, 중개플랫폼, OTA\***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환급 거절 및 지연 등의 피해사례 증가

\*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, 호텔 등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(Online Travel Agency)

◆ 2023년 1분기 전체 피해 **425건** 중 여행사, 어플리케이션, 온라인플랫폼, OTA등의 피해 상담이 **232건으로 약 50%의 비중**을 차지 (수수료 과다, 환급 거절 및 지연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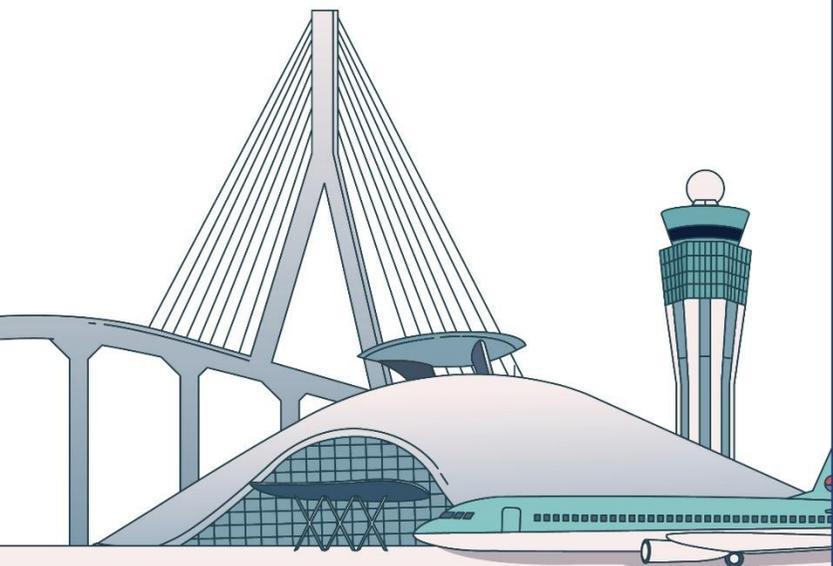
◆ 특히, **키위닷컴(Kiwi.com)** 등 **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OTA**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,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, 결제수단 환불이 아닌 해당 업체의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,

◆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OTA에 불공정 약관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**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**

키위닷컴 피해 접수 건수

구분	'22년				'23년	합계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
접수 건수	7건	13건	26건	46건	95건	187건
이전 분기대비 증가율	-	85.7%	100.0%	76.9%	106.5%	

## 항공교통 소식



### 0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저가 항공권 예약 시 소비자 피해 주의



#### 소비자 대책

1. 항공권 구매 시 여정 변경 가능 여부, 환불·변경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,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로 항공권 취소 시 원칙적으로 거래 조건에 따라 환불이 진행되므로 결제 전 구매를 신중히 고려  
→ 저렴한 항공권을 찾았다더라도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여정 변경 및 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, 항공사, 여행사, 중개플랫폼, 글로벌OTA 등 판매처별 상이한 거래 조건을 비교 후 구매 권장



2. 취소·환불 지연 및 거래 조건과 상이한 수수료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 
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(ccn.go.kr) 또는  
국제거래 소비자포털(crossborder.kca.go.kr)에 상담 요청





# 항공여객 운송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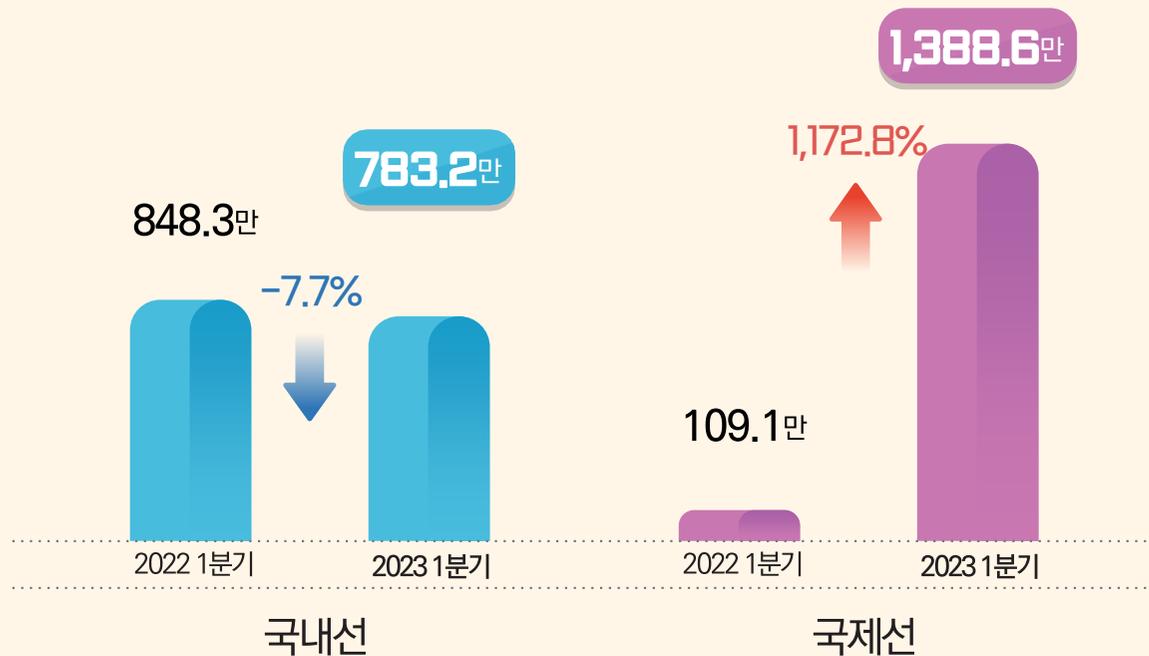


- ◆ 전체 여객은 2,171.7만 명 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**18.1%** 증가
- ◆ **국내** 783.2만 명으로 **7.7%** 소폭 감소, **국제** 1,388.6만 명으로 **1,172.8%** 증가 (2019년 동 분기 실적 약 60.4% 수준 회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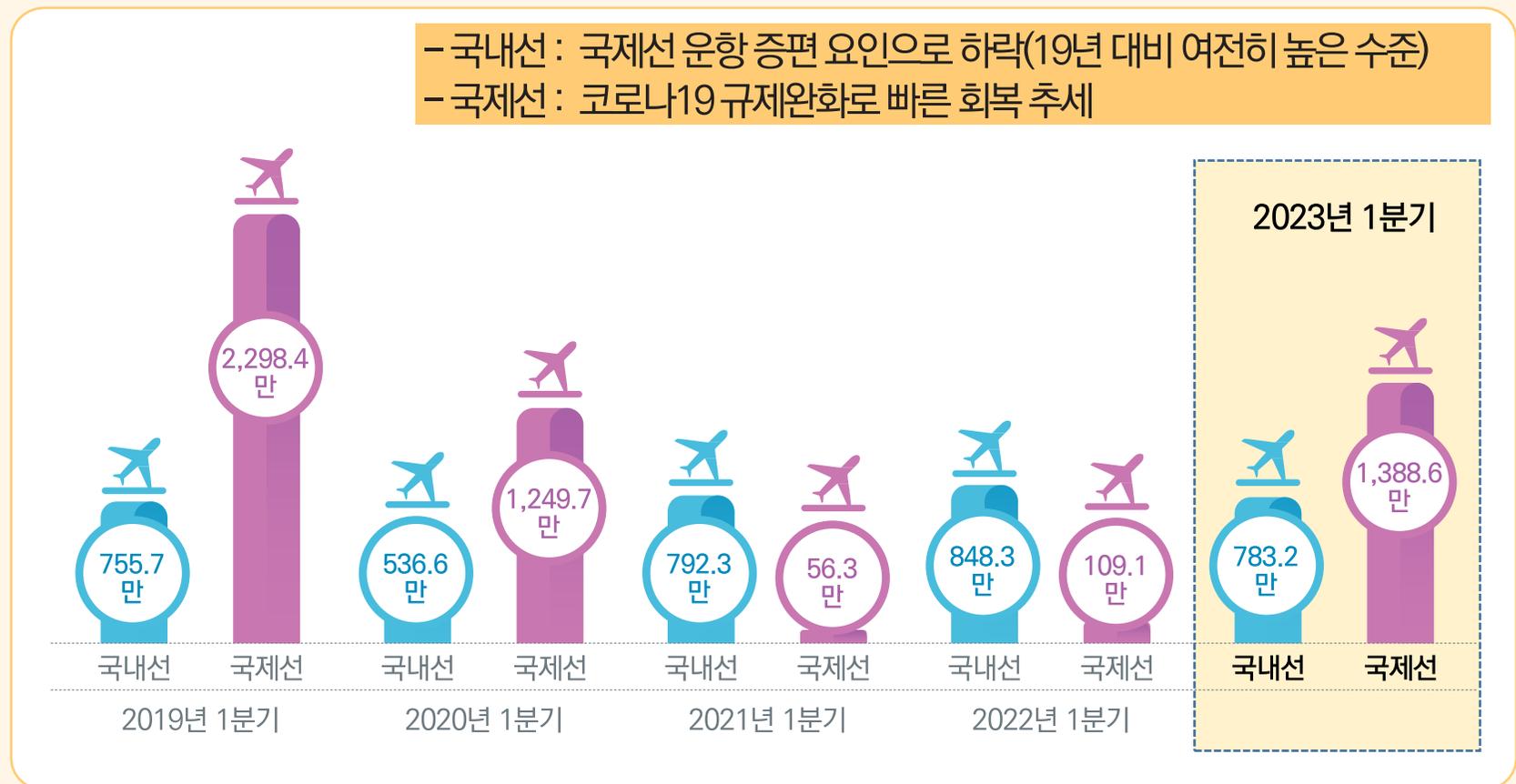
## 전체 여객 실적

# 2,171.7만

(전년 동 분기 대비 **18.1%** ↑)



- 국내선 : 국제선 운항 증편 요인으로 하락(19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)
- 국제선 : 코로나19 규제완화로 빠른 회복 추세





# 항공여객 운송 실적



- ◆ **국내** 대형항공사 33.6%, 저비용항공사 66.4% 비중 (저비용항공사 비중: 2019년 57.8%)
- ◆ **국제** 국적사와 외항사 점유율은 국적사가 70.9%, 국적항공사 중 저비용항공사가 54.8%를 차지(2019년 44.0% 비중)

## (국적) 항공사 실적



국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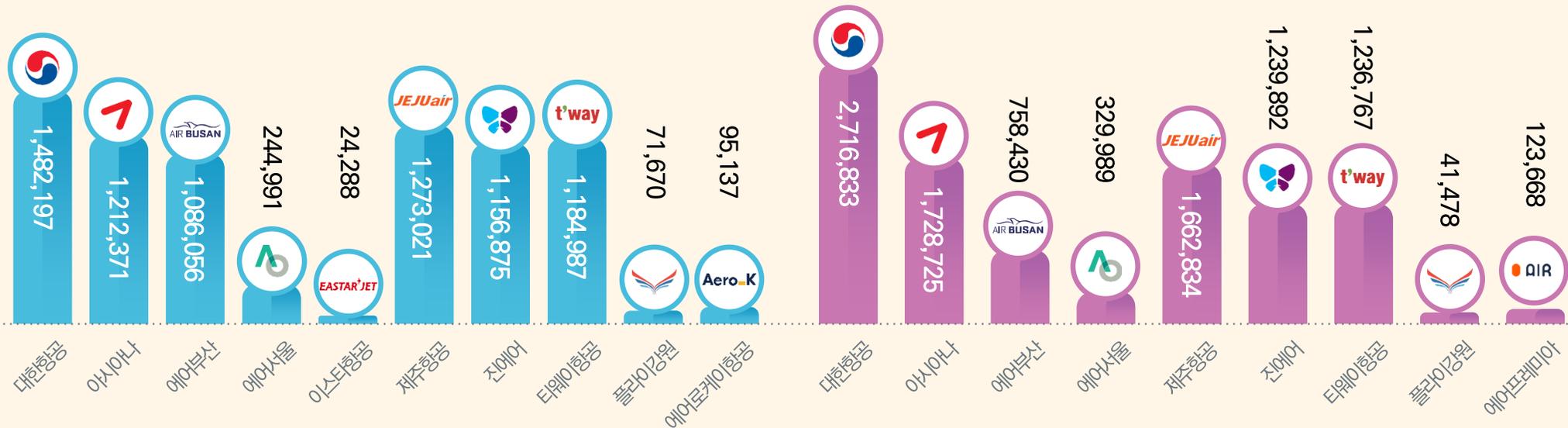
783 만



국제

984 만  
(전체: 1,389만)

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 점유율이 66.4%로 높은 상황이며, 국제선은 일본 등 단거리 운항으로 실적 및 점유율이 크게 증가



## 국제선 주요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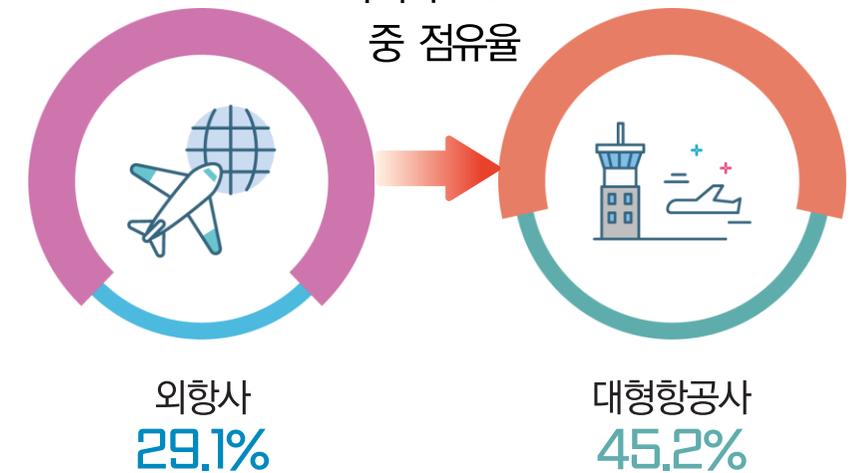
국적사 vs 외항사

대형항공사 vs 저비용항공사

국적사 70.9%

저비용항공사 54.8%

국적사 70.9%  
중 점유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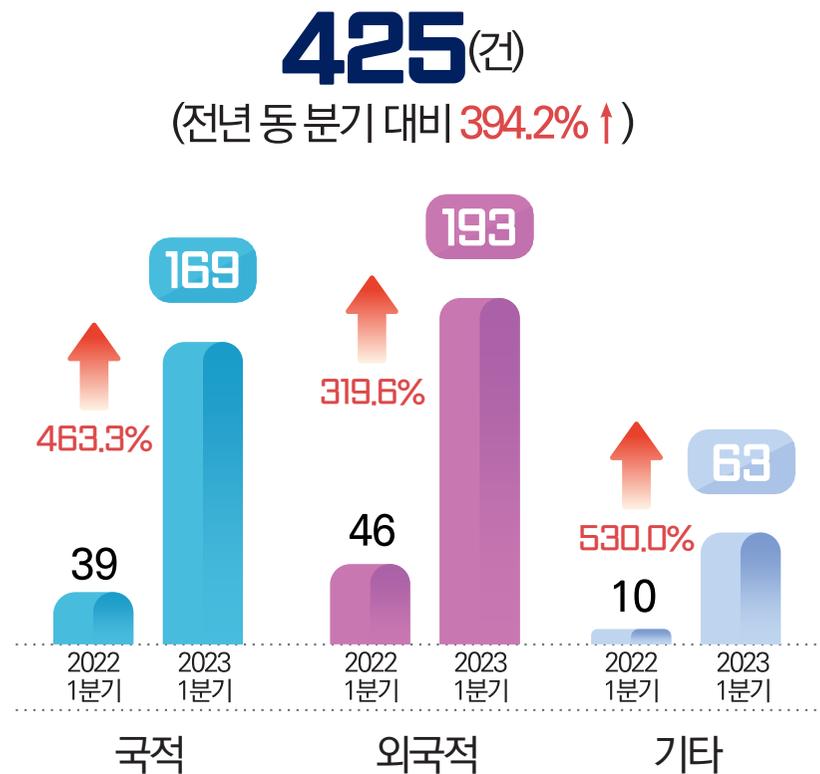
# 항공교통이용자 피해 구제 현황



- ◆ 피해 구제 신청은 425건(국적사 169건, 외항사 193건, 기타 63건)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약 394.2% 증가
- ◆ 여객 100만 명 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외항사 63.3건으로 국적사에 비해 많은 편,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관련 피해가 약 60.9% 차지

## 피해구제 현황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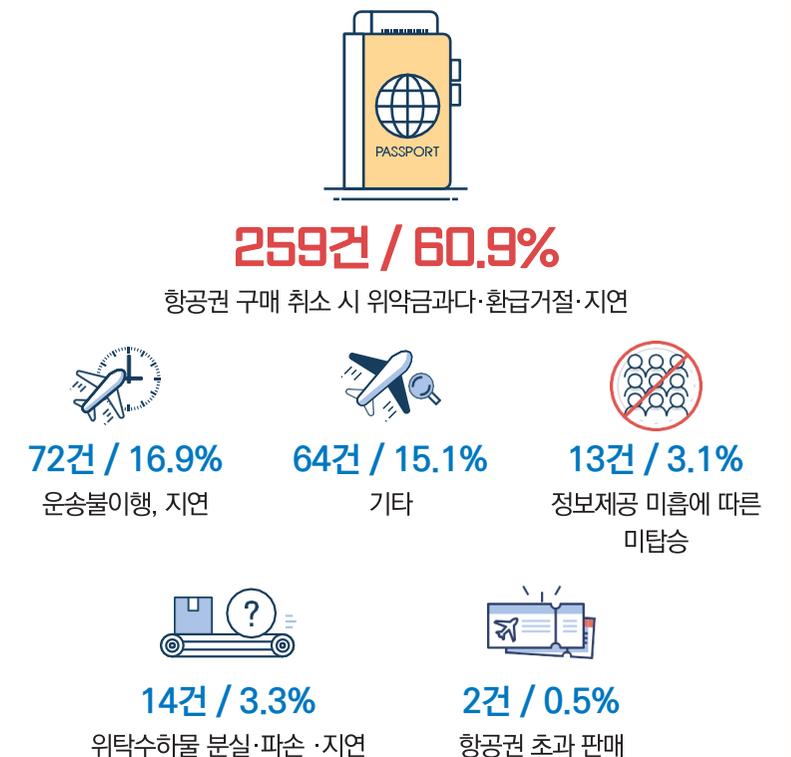
피해구제 접수 (단위:건수)



여객 100만 명 당 피해구제 접수 (괄호 안은 전체 신청건수)



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(단위: 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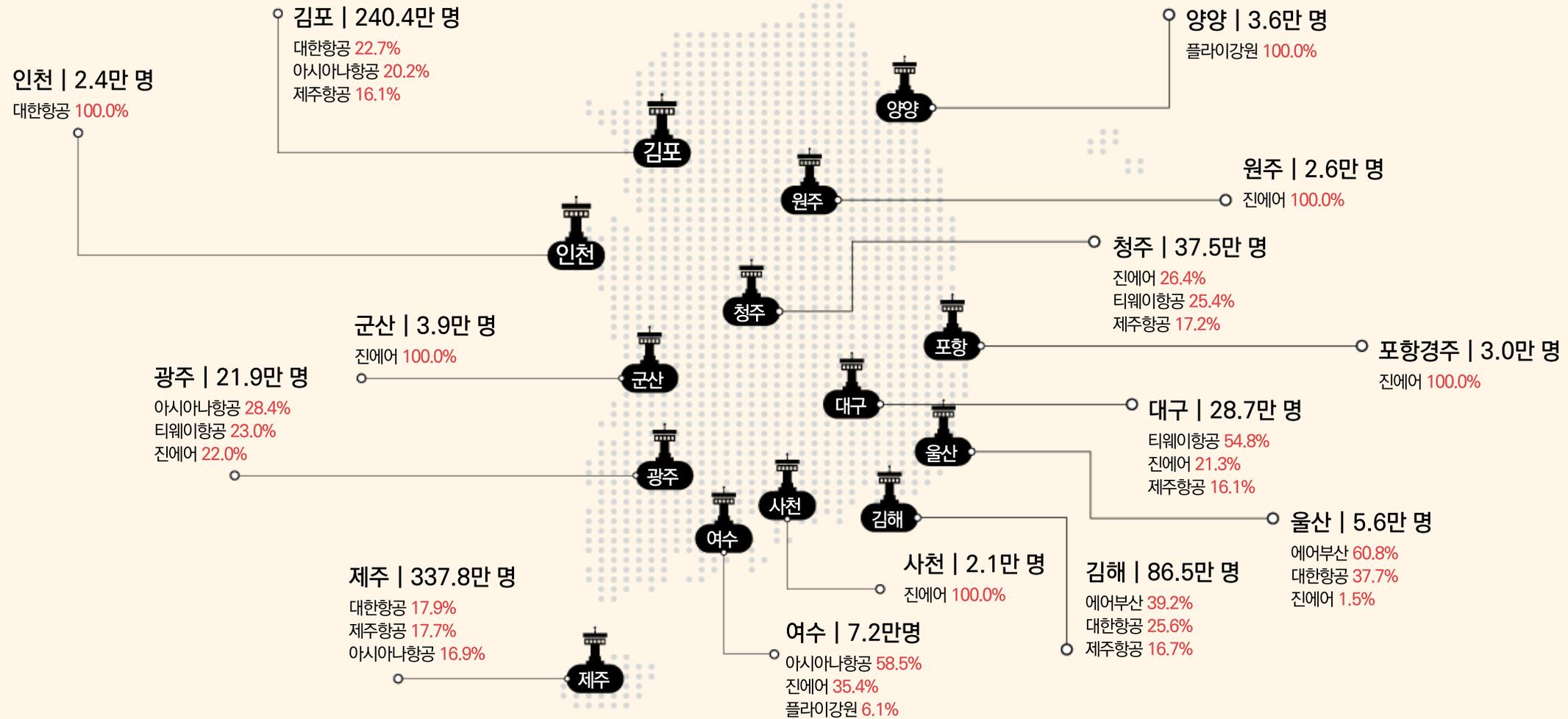


# 공항 운송 실적



- ◆ **국내** 전체 실적은 제주공항 337.8만 명, 김포공항 240.4만 명, 김해공항 86.5만 명, 청주공항 37.5만 명, 대구공항 28.7만 명 순
- ◆ 공항별 취항 항공사 점유율 상이하며, 군산·사천·원주·포항경주 공항은 진에어만 취항

## 공항별 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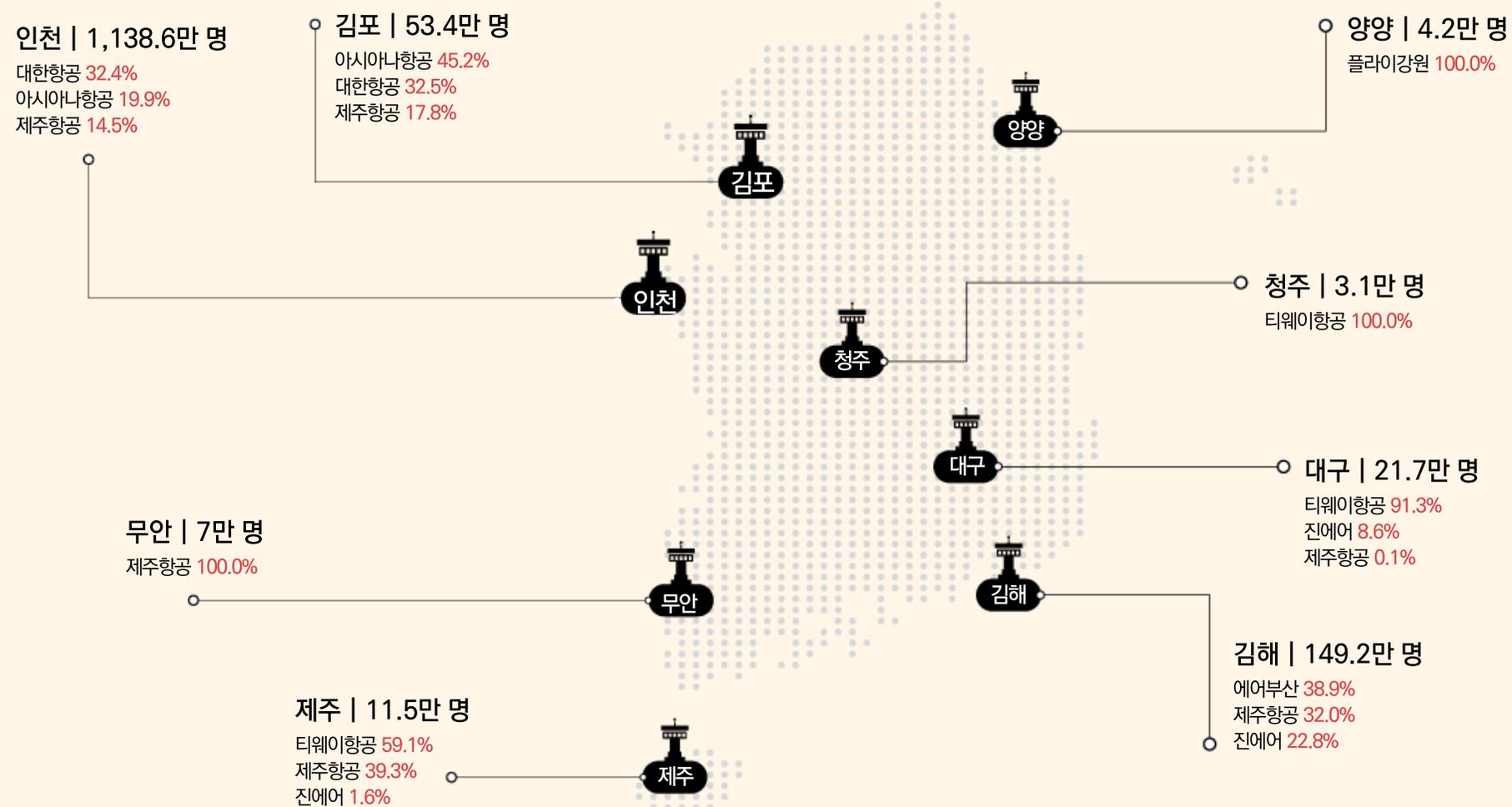


# 공항 운송 실적



- ◆ **국제** 전체 실적은 인천공항 1,138.6만 명, 김해공항 149.2만 명, 김포공항 53.4만 명, 대구공항 21.7만 명, 제주공항 11.5만 명 순
- ◆ 엔데믹 이후 지방공항 국제선(일본, 동남아 등) 취항으로 실적 증가 추세

## 공항별 실적





# 시간 준수율



- ◆ **전체** 시간 준수율은 79.2%이며, 국내선은 79.6%, 국제선은 78.6%
- ◆ **국내** 대형항공사 84.6%, 저비용 항공사 76.6%로 예정시간보다 15분 이내에 출도착한 비율이 대형항공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
- ◆ **국제** 외항사의 시간준수율이 5.5%p 더 높았으며, 국적사 중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시간 준수율은 비슷한 수준

## 시간 준수율

79.2%

79.6%

78.6%



국내선



국제선

### 국내선

### 국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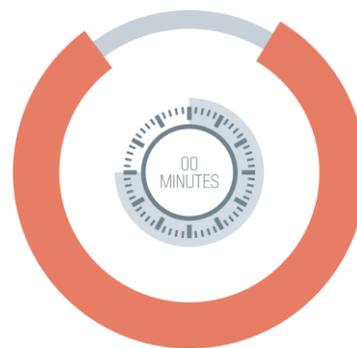
대형항공사 vs 저비용항공사

국적사 vs 외항사

대형항공사 vs 저비용항공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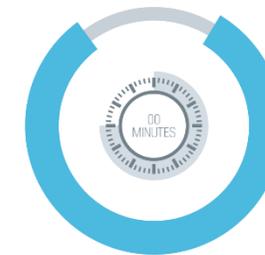
대형항공사  
84.6%



저비용항공사  
76.6%



국적사  
77.0%



외항사  
82.5%



대형항공사  
77.3%



저비용항공사  
76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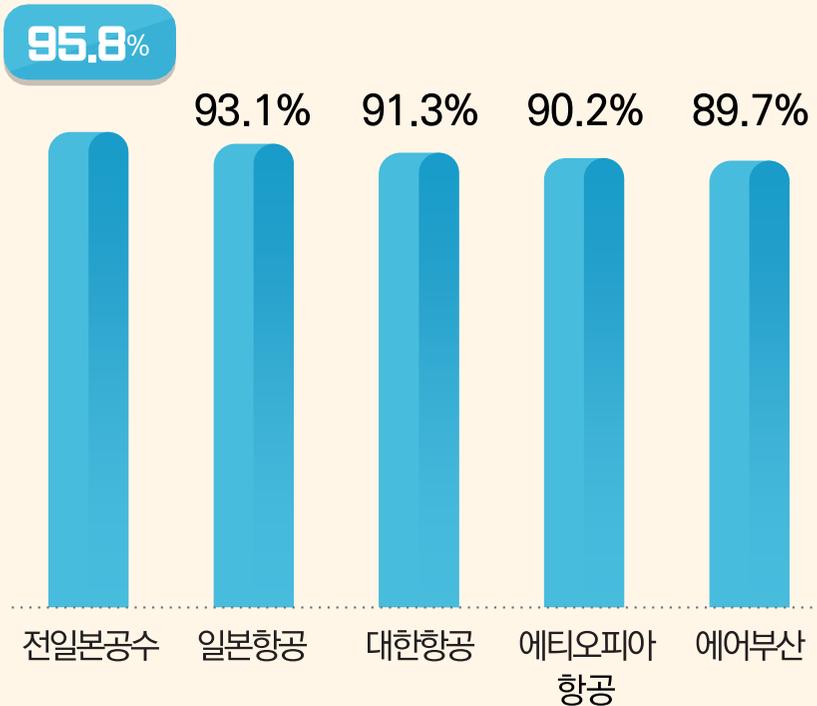


# 시간 준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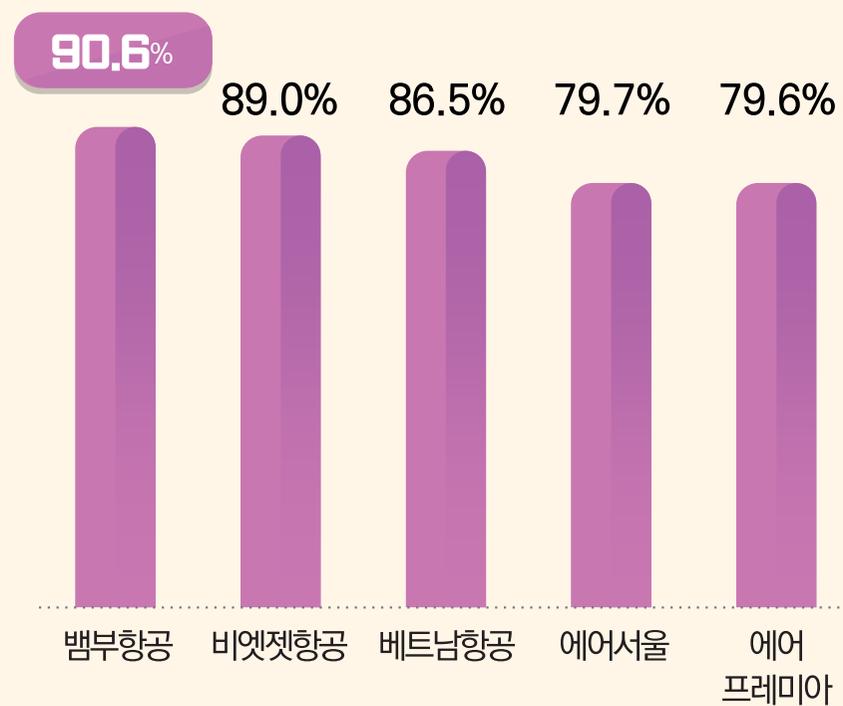


- ◆ 주요 국제 노선 TOP 3는 일본, 베트남, 미국이며, 시간준수율은 일본 83.0%, 베트남 77.6%, 미국 66.0%임
- ◆ 일본노선은 전일본공수, 일본항공, 대한항공 순, 베트남은 뱀부항공, 비엠텐, 베트남항공 순, 미국은 에어프레미아, 아메리칸, 델타항공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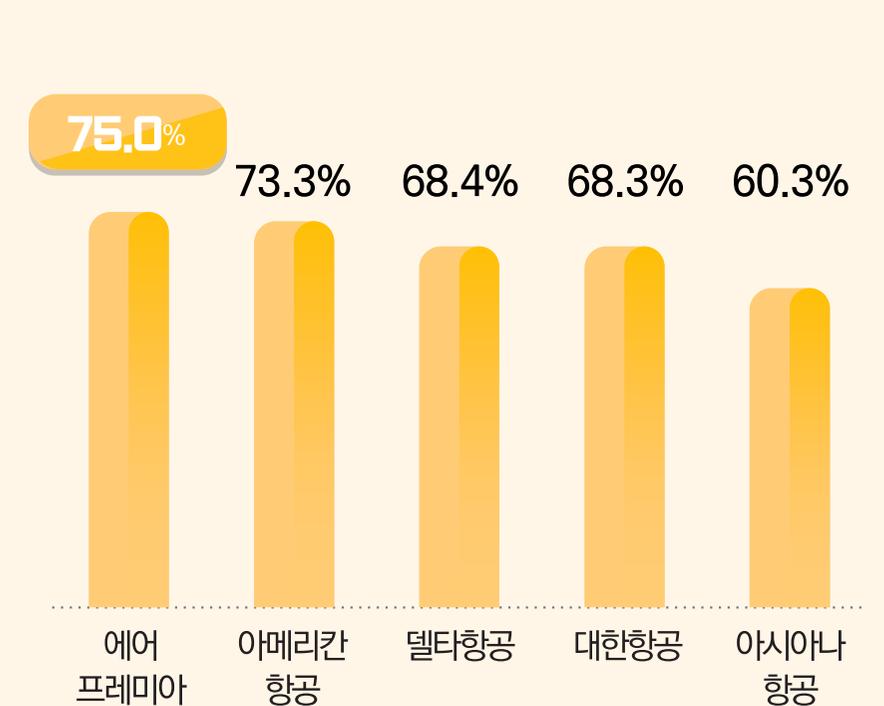
## 일본



## 베트남



## 미국





# 지연율



- ◆ **전체** 지연율은 20.3%이며, 국내선은 19.6%, 국제선은 21.3%
- ◆ **국내** 대형항공사 14.7%, 저비용항공사 22.7%로 저비용항공사가 대형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지연이 더 빈번하게 발생
- ◆ **국제** 국적사가 외항사보다 6.3%p가량 지연율이 높았음

## 지연율

20.3%

19.6%

21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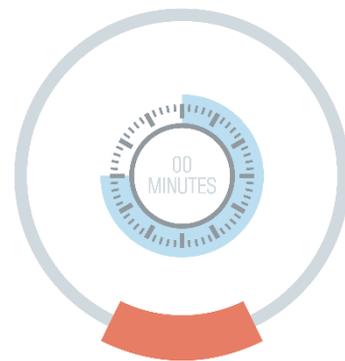
국내선



국제선

### 국내선

대형항공사 vs 저비용항공사



대형항공사  
14.7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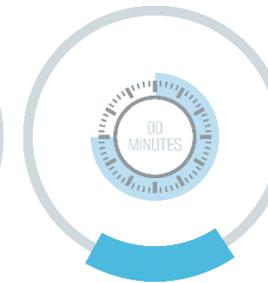
저비용항공사  
22.7%

### 국제선

국적사 vs 외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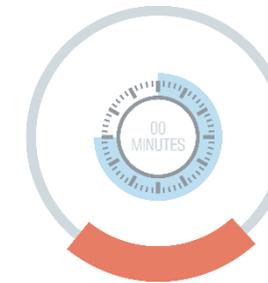


국적사  
23.0%



외항사  
17.3%

대형항공사 vs 저비용항공사



대형항공사  
22.7%



저비용항공사  
23.2%



# 결항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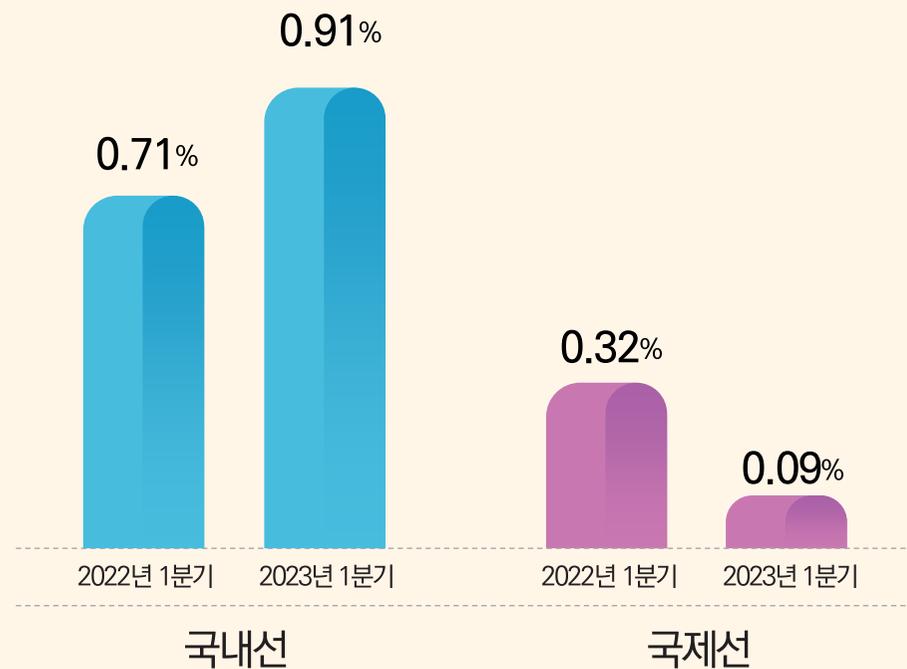


- ◆ **전체** 결항률은 **0.58%**이며, 국내선 **0.91%**(전년 대비 0.2%p 증가), 국제선 **0.09%**(전년 대비 0.23%p 감소)
- ◆ **국내** 대형항공사는 **0.74%**, 저비용항공사는 **1.02%**로 지연과 마찬가지로 저비용항공사의 결항률이 대형항공사보다 더 높았음
- ◆ **국제** 지연율과 달리 결항률은 외항사가 국적사보다 더 높았음

## 결항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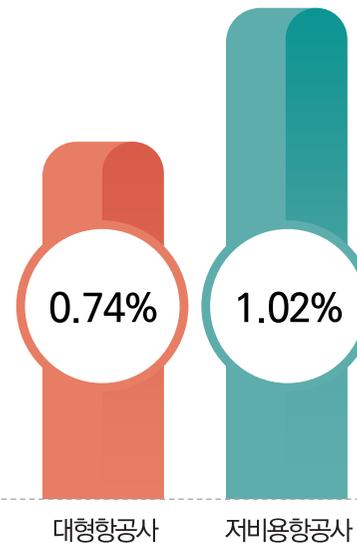
### 0.58%

(전년 동 분기 대비 0.10%p ↓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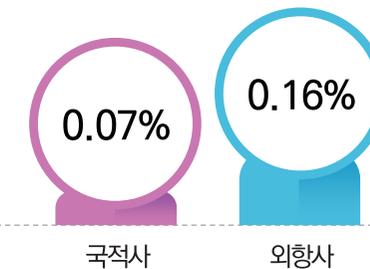
### 국내선

대형항공사 vs 저비용항공사



### 국제선

국적사 vs 외항사



대형항공사 vs 저비용항공사

